

055 ☆☆☆

■ 출제 예상

: [ 삽입 ] / ⇩ 순서 / 빈칸

- regulation 규정, 규제
- subject 피험자, 대상
- 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
- proposed 계획된, 제안된
- rigorous 철저한, 엄격한
- oversee 감독하다
- functionally 기능적으로
- restriction 규제, 제한
- associated 관련된
- sidestep 피하다
- ethical 윤리적인
- involved 수반되는
- presumably 아마, 짐작건대
- potential 잠재적인
- hazard 위험
- devise 고안하다, 생각해 내다
- drawback 문제점, 결점
- generate 만들어 내다, 발생시키다
- physiology 생리, 생리 기능
- derive 얻다, 끌어내다
-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 atypical 이례적인

■ 수능완성 3강 2번

■ 자기 실험의 장단점

: 자기 실험은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만 얻을 수 있다!

**Regulations covering scientific experiments on human subjects are stringent.** Subjects must give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 and experimenters must submit their proposed experiments to rigorous scrutiny by overseeing bodies.



**Scientists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avoid the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nobody, presumably, is more aware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s than the scientist who devised it.



**Nonetheless, experimenting on oneself remains deeply problematic.** One obvious drawback is the danger involved; knowing that it exists does nothing to reduce it. A less obvious drawback is **the limited range of data that the experiment can generate.**



[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vary**, in small but significant ways, according to gender, age, lifestyle, and other factors. ] Experimental results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are, therefore, of limited value; there is **no way to know whether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stringent 엄격한, 엄중한 \*\*scrutiny 정밀 조사 \*\*\*anatomy (해부학적) 구조

■ AYDENOTE

인간 피험자에 관한 과학 실험을 다루는 규정은 엄격함(= stringent)!

⇩ **자신을 실험**하는 과학자들은 타인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 restriction)를 피할 수 있으며**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도 대부분 피할 수 있음(= sidestep)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실험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심각함! - **제한된(= limited) 데이터의 범위**

⇩ (왜냐하면) [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는 각기 다르기(= vary) 때문임! ] ∴ 피험자의 반응이 전형적인 것인지 이례적인 것인지 알 수 없음!

인간 피험자에 관한 과학 실험을 다루는 규정은 엄격하다. 피험자는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서면으로 된 동의를 해야 하고, 실험자는 자신들의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 감독 기관에 의한 철저한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신을 실험하는 과학자들은,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도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실험을 고안한 과학자보다 그것의 잠재적인 위험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실험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한 가지 명백한 문제점은 (실험에) 수반되는 위험이다.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덜 명백한 문제점은 실험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데이터의 제한된 범위이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는 성별, 나이, 생활 방식, 그리고 기타 요인에 따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각기 다르다. 따라서, 단 한 명의 피험자로부터 얻어진 실험 결과는 가치가 제한적이며, 피험자의 반응이 집단으로서의 인간 반응의 전형적인 것인지 이례적인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NOTE

057 ☆☆

■ 출제 예상

: 빈칸 / ↓ 순서

- explicitly 분명히, 명시적으로
- comparative 비교에 의한, 비교의
- cause 논점, 논의의 주제
- representative 대표자; 대표적인
- so-called 소위
- school (of thought) 학파
- notably 특히
- methodological 방법론적인
- assumption 가정
- counterpart 상응하는 사람[사물], 등가물
- valid 유효한
- emphasis 강조

■ 수능완성 8강 3번

■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경제 분석

: 경제 행위 연구를 할 때 역사적, 사회적 방식에서도 이용되어야 한다!

In 1843, German economist Wilhelm Roscher explicitly raised the issue of **the need to use the historical method in economics**, the essential element of which should be **a comparative approach**.



Roscher argued that **economic behaviours are dependent on their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causes that in their studies should be used **not only in an economic but also a histor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



The first task of a researcher is therefore to **immerse oneself in history to get as wide a knowledge of economic facts as possible**, and on that basis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society**.



This explains why so much effort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so-called older historical school, notably Bruno Hildebrand and Karl Knies, **focused on describing the stage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ety**.

\*순서 유형으로 출제 시 누락 될 수 있는 부분

There is often talk of **the methodological assumption** common to most representatives of this school of thought, **shared by their English counterparts**, which was **a denial of the existence of universally valid economic laws in conjunction with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s**.

\*immerse 몰두하다 \*\*in conjunction with ~와 함께

■ AYDENOTE

경제학에서 역사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 - 비교 접근법(= comparative approach)이어야 함!

↓ 경제 행위들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좌우 됨! ∴ 경제 행위 연구에 역사적, 사회적 접근 방식에서도 이용되어야 함!

↓ 첫 번째 과제 - 연구자는 역사를 통해 경제적 사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어야 하고 경제와 사회 간의 관계(= relationship)를 알아내야 함

↓ 이것이 구역사학파의 대표 학자들이 사회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기술하는 것에 집중함(= focused on) 이유임!

↓ 상응하는(= counterpart) 역사학파가 공유하는 방법론적 가정 - 보편적으로 유효한 경제 법칙의 존재 부인(= denial) & 개별 사실의 중요성 강조

■ 단어의 힘! counterpart 상응하는

상응하는이라는 단어로 인해 보편적으로 유효한 경제 법칙(= 경제학에서 역사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의 존재를 부인하는다는 내용이 와야함!

NOTE

1843년 독일 경제학자 Wilhelm Roscher는 경제학에서 역사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성이라는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는데, 이 방법의 본질적 요소는 비교 접근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Roscher는 경제 행위들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좌우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 행위들을 연구할 때 경제적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접근 방식에서도 이용되어야 하는 논점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첫 번째 과제는 경제적 사실에 대한 가능한 한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 역사에 몰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경제와 사회 간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구역사학파의 대표 학자들, 특히 Bruno Hildebrand와 Karl Knies의 상당히 많은 노력이 사회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기술하는 데 집중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들에 상응하는 영국 역사학파가 공유하고, 이 학파의 대부분의 대표 학자들에게 공통되는 방법론적 가정에 대한 논의가 자주 있는데, 이는 개별 사실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보편적으로 유효한 경제 법칙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058 ☆☆

- 수능완성 9강 Let's Check It Out
- 통신 수단 발달의 결과  
: 사회가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왔다!

- 출제 예상  
: [ 빈칸 ] / 어법

A paradoxical effect of better communications has been social fragmentation and isolation. Social contact is a fundamental human need. We are social animals.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contributed relentlessly to the isolation of people from one another. As the increasing frequency of people dying alone reveals, all is not well in modern society. Today there are many new ways in which people are able to lead rich and fulfilling social lives. And yet the social fabric that connected people at the local, geographical level has largely disappeared. And the trend towards social fragmentation just keeps on increasing. Many technological changes were introduced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time-saving for the consumer. It is more convenient if you can do your banking online from home. But the unforeseen side effect is [ to chip away at our exposure to social contact ]. Perhaps the most serious consequence is that convenient technologies are fragmenting the social networks that reinforce important moral, ethical and social values.

- paradoxical 역설적인
- fragmentation 파편(화), 분열
- isolation 고립, 격리
- fundamental 근본적인
- reveal 보여 주다, 드러내다
- fulfilling 성취감을 주는
- fabric 구조, 천
- geographical 지리적인
- efficiency 효율(성)
- unforeseen 예상치 못한, 뜻밖의
- chip away at ~을 조금씩 없애다[깎아 먹다]
- fragment 해체하다, 산산이 부서다
- reinforce (감정·생각 등을) 강화하다

\*relentlessly 끊임없이

■ AYDENOTE

통신 수단의 발달의 역설적(= paradoxical) 결과로 사회가 파편화(= fragmentation)되고 고립(= isolation)되어 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이해!

\*

[ 빈칸 ] the unforeseen side effect 예상치 못한 부작용 = chip away at our exposure to social contact(= 고립) 사회적 접촉에 노출되는 기회를 조금씩 없앤다!

더 나은 통신 수단의 역설적 결과는 사회가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사회적 접촉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기술 혁신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서로로부터 고립시키는 원인이었다. 사람들이 혼자서 죽는 빈도의 증가가 보여 주듯이,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채롭고 성취감을 주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지역적, 지리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던 사회적 구조는 대체로 사라졌다. 그리고 사회가 파편화되는 추세는 그야말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효율성 및 시간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술적 변화가 도입되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면 더 편리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접촉에 노출되는 기회를 조금씩 없앤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결과는 편리한 기술이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NOTE

■ 어법

Today there are (선행사) many new ways  
+ in which + ㉠ people ㉡ are able to lead ㉢ rich and fulfilling social lives.

\*전치사 +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온다!

\*\*die & disappear = 자동사

(die는 수동태가 되면 죽임을 당하다, 즉, be killed로 표현 한다! dead는 수동태가 아닌 형용사!)

## 134 ☆

- 수능완성 2강 2번
- 온라인상에서 익명 유지의 필요성  
: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단서 중 많은 것들이 없기 때문!

**Directness and honesty are qualities that our society values highly.** We expect people to be who they say they are and tell us the truth about themselves. Before the advent of computers, **anyone who used an assumed name was thought to be hiding something disreputable.** **Inexperienced computer users may continue to feel this way** about online contacts. Because **so many of the cues that we use to evaluate people are missing in cyberspace,** computer users need to understand that virtual meeting places are different from face-to-face contacts. **Until we have good reason to know and trust the people** behind the instant message pop-up or the chat room screen, **we should [ remain anonymous ] and it is not dishonest to do so.**

- 출제 예상  
[ 빈칸 ] / 어휘  
\*무관한 문장

- directness 솔직함
- quality 자질
- advent 출현
- assumed name 가명
- disreputable 불명예스러운, 평판이 안 좋은
- cue 단서
- evaluate 평가하다
- virtual 가상의
- anonymous 익명의

## ■ AYDENOTE

솔직함과 정직 = 우리 사회가 높이 평가(= value)하는 자질

↓

가명(= assumed name)의 사용은 불명예스러운(= disreputable)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

경험이 부족한(= inexperienced) 컴퓨터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가명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음!

↓

(그러나) 평가할 단서가 부족한(= 없는 = missing) 온라인

↓

사람들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까지는 [ 익명을 유지해야(= remain anonymous) ] 하며 이는 부정직한(= dishonest) 것이 아니다!

## ■ 경험이 부족한 = inexperienced

필자는 온라인에서는 타인을 믿어도 될만한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익명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컴퓨터 사용자들이 가명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임!

솔직함과 정직은 우리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자질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는 그대로이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해 주기를 기대한다. 컴퓨터의 출현 이전에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명예스러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경험이 부족한 컴퓨터 사용자들은 온라인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서들 중 많은 것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자들은 가상의 만남 장소가 대면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스턴트 메시지 팝업이나 채팅방 화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익명으로 남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AYDENOTE

135 ☆

■ 출제 예상

빈칸

- primary 가장 중요한, 제1의
- institution 기관, (정신 질환자 등을 위한) 보호 시설
- monitor 추적 관찰하다, 감시하다
- passage 경과, 추이, 통로, 통과
- nation 국민, 국가
- contribute to ~하게 만들다, ~에 기여하다
- separation 분리, 따로 떨어짐
- dominance 우위, 지배
- emerge 부상하다, 나타나다
- diagnosis 진단
- treatment 치료
- landscape 지역, 경관, 풍경
- gradually 차츰, 서서히

■ 수능완성 4강 Let's Check It Out

■ 병원 수의 증가와 그 결과

: 병원이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주요 장소가 되었으며 죽음과 집을 분리시킴!

As the health of the social body began to change, **hospitals became the primary institutions to care for the sick and monitor the passage from life to death. The dramatic rise in the number of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and their increasing control over the health of the nation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death from everyday life.** As doctors achieved professional dominance in the practice of medicine in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hospitals emerged as the principal sit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tients.** In the words of one social historian, "Whereas **doctors came to patients in the 1870s, by the 1920s, patients increasingly came to doctors.** Over this time span, the American hospital changed in size and clientele. An 1873 survey counted 178 hospitals, about 50 of which were institutions for the mentally ill. A 1923 tabulation listed 6,830, or an increase of about 3,800 percent." While this change was most dramatic in the urban landscape, it also occurred gradually in rural areas. It should be no surprise that one consequenc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eaths away from home,** the traditional place for end of life scenarios.

\*clientele 고객[환자] 집단 \*\*tabulation 목록, 표

■ AYDENOTE

병원이 환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경과를 추적 관찰하는 주요(= primary) 기관이 됨

⇓

**죽음과 일상생활이 분리(= separation) 되는 것에 기여함!**

= **죽음이 집으로부터 떨어져서(= away from home) 발생하는 수의 증가!**

\*

예전에는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다는 내용을 확인할 것!

사회적 신체(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전체 인구 집단을 말함)의 건강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병원은 병자를 돌보고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경과를 추적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전국에 걸쳐 병원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병원의 통제력이 늘어남으로써 죽음이 일상생활과 따로 분리되게 되었다. 20세기 초반 수십 년에 의사들이 의료 행위에서 전문적인 우위를 확보하면서 병원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주요 장소로 부상했다. 한 사회사학자의 말에 따르면, "1870년대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왔지만,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환자가 점점 더 의사에게 왔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병원은 규모와 고객[환자] 집단이 변했다. 1873년 조사에서는 178개의 병원이 있었는데, 그중 약 50개는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보호 시설이었다. 1923년 목록에는 6,830개가 실렸는데, 즉 그것은 약 3,800퍼센트가 증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지역에서 매우 극적이었지만, 차츰 농촌 지역에서도 일어났다. 한 가지 결과로서 죽음이 인생이라는 시나리오의 결말을 위한 전통적인 장소인 집으로부터 떨어져 발생하는 수가 증가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NOTE

## 136 ☆

- 수능완성 4강 2번
- 학습자에 대한 인지적 견해의 차이와 예술 교육  
: 인지 이론과 예술 모두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을 가진다!

- 출제 예상  
: [ 빈칸 ] / ↕ 순서

There are **multiple views of the learner in theories of cognition**, just as there are multiple theories of the nature of art.



Some portray the learner as **a lone individual trying to make sense of a work of art** or, for that matter, the world. Others picture learners as **living within a social or cultural context from which knowledge derives its meaning**. Such **different views** of the learner **[ have consequences for teaching the arts ]**.



At the same time, **if works of art are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origins and purposes**, then it would make sense to **integrate the knowledge of the artwork into those subjects**, such as the social studies or history, where knowledge of the culture and society is collaterally provided.



**But if works of art are thought of as autonomous structures whose meaning is set by the artist**, where there is one "objective" or "right" interpretation, independent of its social context, then it might make more sense to **pair this conception of art with the view of the learner as a lone individual**.

\*collaterally 나란히

- cognition 인지, 인식
- portray 묘사하다, 그리다
- context 상황, 환경
- derive 도출하다
- integrate 통합하다
- autonomous 자율적인, 자치의
- structure 구조, 구성
- objective 객관적인
- interpretation 해석
- pair 결합하다, 한 쌍이 되다; 한 쌍
- conception 개념

#### ■ AYDENOTE

인지 이론에서 학습자에 대한 여러 견해(= multiple views)가 있음!

↓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홀로 존재하는 개인 vs. 지식이 그 의미를 도출하는 사회적/문화적 상황에서 살아가는 존재 = [ 예술을 가르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have consequences) ] 서로 다른 견해

↓ 예술 작품이 사회적/문화적 기원과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라면 지식을 통합(= integrate)하는 것이 맞음!

↓ 그러나 예술 작품의 의미가 예술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면 홀로 존재하는 개인(= a lone individual)으로 보는 것이 맞음!

예술의 본질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인지 이론에서도 학습자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다. 일부 견해들은 학습자를 예술 작품을, 또는 마찬가지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홀로 존재하는 개인으로 묘사한다. 다른 견해들은 학습자를 지식이 그 의미를 도출하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상황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묘사한다. 학습자에 대한 그러한 서로 다른 견해는 예술을 가르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와 동시에, 예술 작품이 그것들의 사회적, 문화적 기원과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그럴 경우 예술 작품에 대한 지식을 사회학이나 역사와 같이,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이 나란히 제공되는 그런 과목에 통합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술 작품이, 그 의미가 예술가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의 '객관적' 혹은 '올바른' 해석이 있는 자율적 구조로 여겨지면, 그럴 경우 이러한 예술 개념을 홀로 존재하는 개인으로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결합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을 수도 있다.

AYDENOTE 

137 ☆

■ 출제 예상

[ 삽입 ] / 어휘

- communal living 공동생활
- necessity 불가피한 일, 필수품
- subordinate 종속시키다
- ensure 보장하다
- civilization 문명화, 문명
- assert oneself 자신 있게 행동하다, 자기주장을 하다
- extraordinary 특별한
- infancy 유아기
- prolonged 장기적인
- disorder 질환, 장애
- flesh 육체, 살
- be heir to ~을 물려받다
- conception 개념, 이해
- guarantor 보장 제도, 보증인

■ 문장 삽입 연결 고리!

장기적인 보살핌 = [ 유아기 동안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보살핌 ]

■ 수능완성 8강 1번

■ 공동생활과 노동 분업

: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였기에 공동체는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최고의 제도임!

**Communal living became a necessity** because **the community and the division of labour** through which all individuals subordinate themselves to the group, **ensured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species. Only division of labour (which is another way of saying civilization) is capable of ensuring that the tools of survival are available to humankind.** Only after they had **learned about the division of labour** did **humans learn how to assert themselves.** [ Consider the difficulties of childbirth and the extraordinary care necessary for keeping a child alive during its infancy! ] **This prolonged care and attention could only be exercised where division of labour existed.** Think of the number of illnesses and disorders that human flesh is heir to, particularly in infancy, and you have some conception of **the inordinate amount of care each human life demands,** and some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communal living. The community is the best guarantor of the continued existence of human beings!**

\*inordinate 엄청난

■ AYDENOTE

노동 분업이 종족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 ensured)했기에 공동생활이 불가피한 일이 됨!

↓

노동 분업만이 인류가 생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available) 보장함!

↓

장기적인(= prolonged) 보살핌은 노동 분업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음!

↓

공동체는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최고의 제도(= the best guarantor)!

\*함께 기억할 어휘 : 엄청난 양의 보살핌(= the inordinate amount of care)

공동생활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와 모든 개인이 그들 자신을 집단에 종속시키는 노동 분업이 종족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문명화인) 노동 분업만이 인류가 생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노동 분업에 대해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출산의 어려움과 유아기 동안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보살핌을 생각해 보라! 이 장기적인 보살핌과 관심은 노동 분업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인간의 육체가 특히 유아기에 물려받는 병과 질환의 수를 생각해 보면, 각 인간의 삶이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보살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과 공동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게 된다. 공동체는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최고의 제도이다!

NOTE